#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지
파견국가	USA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4 Fall – 2015 Spring (2개학기)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크기는 순천향대학교 정도 되고, 풋볼 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농구장, 짐 등의 체육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려면 학교 내로 오는 81번 버스 타고 Harrisburg로 가서 그레이하운드나 메가버스, 비행기 또는 친구차 타고 가야합니다. 월마트나 자이언트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일찍 끊기고, 1시간에 한 대정도 있어서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로 백인이 많고, 주변에도 거의 다 학생이 살아서 안전한 편입니다. 가끔 총기 든 강도 있다고 메일이 오긴 했는데, 학교 내에 경찰이 항상 있으니 치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학교 외에 정말 아무 것도 없어서 굉장히 지루한 편입니다.		
2014-2학기 수업	Principle Biology: Cell Structure & Function: 일반생물학 수업입니다. 첫 학기 적응을 위해 들었던 수업이라 한국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수업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응을 위해 들으셨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교수님이 하는 말을 전부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인지, 원래 아는 내용이라 교수님설명을 못 알아 들어도 이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경우 후자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학기 후반에는 수업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다른 분들께는 아는 내용을 다시 배우는 것보다 새로운 수업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험 수업도 병행하는 수업이었는데,워낙 기초 수업이라실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Human Biology: 과목명 그대로 인체에 대한 수업입니다. 위 수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이긴 했으나,각 신체 부위에 대한명칭을 영어로 다시 외워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재미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전공 두 과목은 교수님이 ppt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경우 ppt파일은 d2l에 올려주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구매&렌트 할 필요 없습니다.

Class, Piano I: 일주일에 두 번 1시간 반씩 진행됐던 피아노 수업입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 정말 기초이론부터 배워서 초보자도 쉽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실에서 단체로 수업하는데 수강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론 & 실기를 병행해서 수업하고, 학기말에 피아노 공연이 있어서 학생마다 한 곡씩 수준에 맞는 곡을 교수님이 지정해주어서 한 학기 내내 연습하고 파이널 기간에 연주회에서 연주합니다.

Basic Writing: 글쓰기 수업으로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들었던 교수님은 4개의 페이퍼, 텍스트에 있는 짧은 에세이 읽고 밑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토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과목들 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공을 들였던 수업이었는데 다른 학생들 보다 읽는 것도 느리고 쓰는 것도 느려서 처음에는 괜히 이 수업을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첫 페이퍼를 쓸 땐 한국어로 먼저 쓰고 번역을 해서 페이퍼를 다시 작성하고, 영문 페이퍼를 라이팅 센터에서 교정 받고, 다시수정해서 재검토 후에 제출했었는데, 학기 진행될수록 바로 영문으로 페이퍼를 작성하게 되어서 라이팅 실력이 조금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매시간마다 글 읽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과제였어서 영어 읽는 속도도 늘었고, 처음에 이런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서 텍스트를 읽거나 페이퍼를 쓰는 것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Molecular Biology: 심화된 전공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최대한 최신 자료를 이용하시려고 하고 이론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실험에 도움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셔서 NCBI를 이용하는 과제가 많았습니다. 학기말에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자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흥미 있는 주제에 관해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기말은 홈테이킹 시험입니다. 수업시간에 ppt를 이용해서 책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험 볼 때 책 필요했습니다.

2015-1학기 수업 Pathogenic Microbiology: 병원 미생물에 관련된 수업으로, 수업특성상 미생물에 관련된 것들을 외워야 해서 외울 것이 정말 많고, 힘들었습니다. 암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교수님도 아셔서 시험을 4번에 나눠서 봤고, 실험 수업 같이 진행되었던 수업이라, 이론 수업과관련된 균의 특성을 토대로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론이나실험이나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어려웠던 수업이었지만, 보람찼던 수업이었습니다. Ppt로 수업을 진행해서 이 수업도 ppt파일 d2l에 올려줬었기 때문에 ppt파일 뽑아서 들었습니다. 랩노트는 따로 쓸필요 없었고, 랩 리포트 두 번 있었습니다. 비교적 과제가 많았어서 본수업에도 과제 많았습니다.

Sel Top: Cell and Molecular Immunology: 면역학 수업으로 이수업도 Senior와 Graduate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 어려웠던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이 이론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녹음과 전자사전을 허용해주셔서 수업을 녹음해서 복습할 때 또 듣고, 어려운 단어들은 사전을 이용하기도 해서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3번 봤고, 교수님이 Study Guide를 올려줘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이 수업도 ppt로 수업했지만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Advanced Organic Chemistry Laboratory: 유기화학실험 수업으로 실험만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학생들 마다 개인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실험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기구들을 많이 다뤄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론 수업을 2년전에 들었어서, 이 실험 수업을 듣는데 걱정이 많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책도 빌려주시고, 계속 encourage해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재가 있지만 교수님이 복사해 주셨고, 랩 노트 썼었는데, 일반 공책이 아닌 뒤에 종이붙어 있는 노트 사용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랩 고글필수였습니다.

Class, Piano II: 전 학기보다 조금 심화된 피아노 수업으로, 다른 교수님이 수업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론 수업, 한 번은 교수님과 레슨이 격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기말 공연이 있어서, 각학생마다 선호하는 곡 두 곡을 선정해서 준비했고, 레슨 시간에 이 곡들치는 것을 교정을 받았습니다. 학기말 공연 전에 다른 Music Class 수강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연하는 것이 있어서 공연했었습니다.

Concert Band: Brass, Wood wind와 기타 다른 세션으로 구성된 밴드로 저는 피아노 파트를 맡아서 참여하였습니다. 일주일 한 번 3시간씩 리허설이 있었고, 보스턴 공연 여행을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 공연 2번을 했고, 4월에 학교 Performing Art center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40-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이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정말 멋있었고, 그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Jazz Ensemble: 섹소폰, 트럼펫, 트럼본, 기타, 드럼, 베이스, 피아노, 보컬로 구성되었던 재즈밴드입니다. 위의 콘서트밴드는 클래식음악을 했었는데, 재즈 앙상블 수업은 이름 그대로 재즈 음악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곡 부분마다 즉흥으로 연주하는 파트가 많았습니다. 콘서트밴드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재즈를 연주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콘서트 밴드와 마찬가지로 보스턴 공연여행에서 2번공연이 있었고, 학교 근처 바에서 디너 공연, 학교 축제 등에도 참여하여공연했습니다.

# 첫 학기에 교환학생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합니다. Guide도 주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먼저 찾아보고 아니면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 Mary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Harrisburg로 Taxi 지원받았었고, 가을학기에는 교환학생 대상으로 Hershey Park, mall 태워다 줬었고, 학교 내에 APB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타 도시나, 공연 등을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줘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다 메일로 오니 프로그램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들 골라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운영 명상프로그램 매주 있었고, 학교 짐에서 요가 프로그램도 있으니 짐에서 스케쥴 확인해서 시간 될 때 가면 됩니다. 학교 내에 라이팅 센터, 튜터링 센터 있으니 필요하면 예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학교 내에 ISO (International Students Organization)이 있으니 가서 친구 사귈 수 있고, Mentoring 연결해줘서 교환학생에게 관심 많은 교수님들이랑 연결시켜 줍니다 멘토 교수님이랑 같이 밥 먹거나, 라이딩 부탁 할 수 있습니다.

Spring 학기에는 달 마다 Coffee hour 있었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기후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지만 여름에 습하지 않고, 겨울엔 눈 많이 옵니다. 햇빛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거라 햇빛 없을 땐 좀 춥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안전	학교 내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전합니다. 주변에서 총기든 강도 있다고 수배중이라는 메일을 받은 적 있었지만, 그런 때에 밖에나돌아 다니지만 않으면 됩니다. 학교 밖을 별로 벗어날 일도 없습니다.

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 기간 동안 같이 간 친구들 모두 Stone Ridge common라는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한 Suite룸에 2인실 방 두 개, 거실, 화장실, 키친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지만 Out campus로 분류 되기 때문에 관리가 심하진 않습니다. ID Swipe해야 출입가능하고 기숙사 1층에 TV있는 라운지, 2,3,4 층에는 세탁실, 스터디룸 있습니다. 세탁실에서는 세탁기 \$1, 건조기 \$1로 이용할 수 있고 스터디룸, 라운지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매 academic year마다 바뀌는 것 같으니 RD나 RA 혹은 룸메한테 물어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숙소

바퀴벌레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는데 바퀴벌레 나오면 잡고 RD한테 얘기하면 방역해줍니다.

룸메 잘못 만나면 한 학기 내내 고생하는데, 룸메가 지나치게 개념이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얘랑 도저히 못살겠다 싶으면 RD한테 얘기하면 방바꿀 수 있습니다.

방에서 위드하는 애들 있을 수 있는데 위드하는거 목격하면 바로 RA나 RD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경찰 불러줍니다.

Stone ridge는 키친이 있어서 Meal plan 안 사도 됐지만 한 학기는 사서학교 식당 편하게 이용했는데 125meal 샀는데 30meal정도 남았었습니다. 봄 학기에는 meal plan 안 썼고, flex만 썼는데 다 쓰고 나서는 그냥 카드 긁었습니다. 굳이 이용 안 해도 됩니다. 주방기구는 룸메들이랑 쉐어했어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비싸지 않으니 월마트에서 사다써도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o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o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가을학기 125 meal + 250 flex사서 flex는 다 썼고, meal은 30정도 남았었습니다. 학교 식당 크라이너, 라이즈너 두 군데 있는데 크라이너는 음식 질은 라이즈너 보다 좋은 편이지만 종류가 적고, 라이즈너는 크라이너보다 질은 조금 낮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처음엔 맛있었는데, 계속 가다보면 질리고, 살 찌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가서 체중 많이 늘었습니다. 식당 외에 CUB에서 사먹는 것도 Meal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던킨, 스시 제외).

Stone ridge common에만 키친이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기숙사 이용하면 밀플랜 필수로 구매해야 합니다. 봄학기에는 월마트에서 쇼핑해서 직접

#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학교 내에 레드, 블루버스 있어서 타고 월마트나 자이언트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고, 월마트 가는데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친구차 얻어타면 월마트 가는데 5분이라 주로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녔습니다. 교내로 오후 5시에 Luhr center앞으로 81번 버스 오는데 그거 타고 Harrisburg로 가서 메가버스나 그레이하운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가 Harrisburg station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레이하운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까지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보면 일요일에 해리스버그에서 학교까지 오는 차 있습니다. 미리 오피스 방문해서 구매해야 하고, \$5입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4. 오보장미 (논인이 시골인 등 미용 <i>)</i>		근 기 : 전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90만원 + 3만원(변경charge)	
Fees	Activity Fee \$264.00 Common Damage Fee \$10.00 Comprehensive Health Fee \$165.00 Educational Service Fee \$362.00 Recreation Fee \$185.00 Student Union Fee \$290.00 Technology Tuition Fee \$321.00 (필수 fees입니다. 매 학기 내야합니다)	
보험료	국내 보험 가능.(50만원)	
숙소	SU Housing Fees \$2530.00	
식비	Meal plan 약 \$1200 2학기에는 한 달에 20-40만원 정도.	
교통비	레드,블루 버스 무료/81번 버스 \$3 해리스버스에서 학교까지 버스 \$5 그 외 다른 그레이하운드, 메가버스, amtrack, 항공료는 해당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Fall text 총 5권 \$200	
Spring text 총 3권 \$150	
구매 안하고 렌트했습니다.	
	한국 계좌로 받아서 학교 내
한 달 용돈 50만원.	atm기에서 달러로 뽑아서 미국
	계좌에 넣어서 이용했습니다.
학교에 낸 돈 Fall \$5414/Spring \$4227	
	Spring text 총 3권 \$150 구매 안하고 렌트했습니다. 한 달 용돈 5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파견 전에 영어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아서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었는데, 굳이 공부한다고 다르지는 않을 것 같으니 미드 보는 것 말고 굳이 다른 방법의 영어공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고생하면서 배우세요.

학교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합니다. 근처에 Wibs라는 바가 있는데 감주처럼 술 마시면서 춤추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엔 꽤 갔는데, 많이 후지고, 지겨워서 그냥 방에서 놀았습니다.

University grille 싸고 맛있습니다. 화, 목 맥주 \$1에 마실 수 있습니다.

PAC 건물 2층에 피아노 연습실 있습니다. 피아노 취미이신 분은 가서 치세요.

학교 컴퓨터 랩실에서 프린트 ID카드 긁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한 학기 \$20까지 쓸 수 있고, 장 당 \$0.04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위드 불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룸에서 룸메들이 위드하면 RA나 RD한테 바로 신고하세요. 룸메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인종차별을 하는 것도 얘기하면 룸 바꿔줍니다. 개념 없는 룸메랑 굳이 참아가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니다 싶으면 방 바꾸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첫 학기에는 쉬운 전공만 들어서 쉬엄쉬엄 공부했었는데, 두 번째 학기에는 어려운 전공도 많고, 학점도 빡빡하게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편하게 놀러 가실 분들은 하는 전공 골라 들으면서 편히 지내시고, 가서 어려운 전공들로 학점 채워야 하는 분들은 힘내세요. 끝나고 나면 뿌듯합니다.

첫 학기에는 룸메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성 장염도 오고 그랬는데, 방바꾸고 편안해졌습니다. 방에 문제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먼저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으면 학교 ISO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수업에서 먼저 말 걸고 노력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혼자 다니시면 됩니다. 혼자 다니는 것도 할만합니다.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향수병도 오고, 다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다 견뎌내고 나면 별 거 아닌 일이됩니다. 수업도 여기 애들 한 번에 다 이해하고 과제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나만이렇게 시간이 배로 들고 정말 고생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정말 고생하러 간 거라그냥 욕하면서 꾸역꾸역 했더니 영어는 가기 전 보단 확실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시 공부하러 타지에 나올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이 교환학생이 아마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고생하고 가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 그냥 여행으로 즐기러만 오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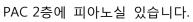


CUB 2층에 International office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뒷 편 건물에 수영장 있습니다.







CUB내부



Old main 건물 앞 분수



\$600불 짜리 기숙사